



사회 >> 3면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목숨을 살렸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기획 >> 4면
“한 줄 요약 좀 해주세요”... 짧은 콘텐츠 전성시대

현장르포 >> 5면
건강한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제591호
2025년 7월 18일(금)

College English 1 중간고사 부정행위 논란... 전면 무효 처리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College English 1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중간고사 시험은 01분반부터 22분반까지 모든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중간고사 진행 과정에서 운영 시스템 오류로 인해 동일한 시험 문제가 모든 수강생에게 출제되고, 시험 일시 정지 기능을 이용해 다수의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은 시험 종료 이후 학생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부정행위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다. 시험이 끝나고, 일부 학생들이 "시

험 일시정지를 누르면 시간이 멈춰 여유롭게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캡처에 검색해 풀 수 있었다"고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시스템의 오류를 반박하며 모든 수강생이 부정행위 논란이 커졌다. 이러한 부정행위 관련 제보가 쏟아지자, 많은 학생들이 인성교양대학과 해커스 교육그룹 측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의를 넣었다. 이에 인성교양대학과 해커스 교육그룹은 중간고사 부정행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5월 13일 중간고사 무효 처리 및 시험 대체 안내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서는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이러한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고사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행위를 확인했고,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방안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수강생들은 1안 오프라인 중간고사 응시 또는 2안 기말고사 성적만으로 최종성적을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중간고사는 시험 성적 확인 후 성적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성적에는 기말 성적만 반영된다. 1안인 오프라인 중간고사 시험 재응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커스 교육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5월 23일 3시, 5월 26일 6시에 해관관에서 진행됐다. 인성교양대학의 중간고사 공지와 더불어 해커스 교육그룹은 이번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시스템 설정의 미흡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커스 교육그룹은 중간고사 대안과 더불어 교양 토익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취업에 필요한 해커스 금융과 자격증 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자격증 과정 목록은 추후 서경대학교 전용 B2B 학습 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과문과 더불어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응시자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강생들의

이름 중 성만 초성으로 표기해 명단을 공개했다. 기준은 시험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거나 일시정지로 비정상적으로 긴 인원, LC와 RC 점수 차이가 250점 이상 차이 나는 인원 두 가지로 총 50명의 부정행위 응시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명확한 취지를 밝혔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우리들의 영웅을 모시다

서경대학교 '각골난망(刻骨難忘)' 프로젝트

서경대학교는 지난 6월 4일, 조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참전 용사 95명을 초청해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서경 히어로즈: 각골난망(刻骨難忘)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풀잎봉사단, 206학군단, 미용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행사의 주제인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선정됐다. 취재부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행사의 진행 과정을 살펴봤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보훈회관에 모인 참전 용사들은 학교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서경대학교에 도착했다. 이어 유담관에서 행사 일정을 안내받은 후 문예홀로 이동했다. 이때 206 학군단은 경례로

예우를 갖추며 참전 용사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10시부터 문예홀에서는 환영식이 진행됐다. 환영식은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 월남참전용사회장과 사무국장 등의 외빈을 비롯해 서경대학교 학생처장과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들이 직접 환영사를 낭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환영식 후, 참전 용사들은 다시 유담관으로 이동해 미용예술대학 학생들로부터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으며 프로필 사진 촬영에 참여했다. 과거 참전 용사들은 공식 제복이 없어 안전 조끼에 태극기와 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복을 대체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식 제복을 제작해 보다 격식 있는 예우가 가능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도 참전 용사들은 새

롭게 제작된 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기념 촬영을 마쳤다. 촬영된 사진은 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정밀한 보정 작업을 거쳐 고품질로 인화됐으며, 고급 액자에 담아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됐다. 또한, 향후 전시회를 개최해 이들의 존엄과 품격을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참전 용사들은 한림관으로 이동해 특식으로 준비된 반계향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 16시경 버스를 타고 보훈회관으로 돌아가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수만 명의 군인을 베트남으로 파병했다. 그 대가로 한미동맹 강화와 대규모의 외화를 받들었으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다. 하지만 참전 용사들은 말라리아 감염과 고열제 피해 등으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 출처: 한빛 총학생회
인 강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이러한 발전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서경대학교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청년들에게 보훈의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이번 각골난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순국선열을 위한 존엄과 예우를 실현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종강을 향해 달리는 그대에게 간식을!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해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총동원 회장단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빛 총학생회는 6월 12일 목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북악관 앞에서 쿠키 세트와 캬박 칼로-슬림 다우를 배부했다. 찬란 인문과학대 학생회는 6월 12일 목요일 11시 30분부터 18시까지 청운관 810호 인문대 학생회실에서 부리또와 콜라를 배부했다. 인문대 인스타그램을 태그한 게시물 올리면 구슬 아이스크림도 받을 수 있었다. 찬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6월 10일 화요일 13시부터 프랭크버거의 프랭크버거 50개, 쉬림프버거 30개, 펄시플라 80개를 배부했다. 백야무적 이공대 학생회는 6월 12일 목요일 18시부터 북악관 앞

에서 치킨마요덮밥과 삼겹김치컵밥을 배부했다. 하나 미래융합대 학생회는 6월 9일 월요일 14시 30분부터 청운관 1층에서 K-불고기피자 50개, 슈퍼콤비네이션 피자 50개,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60개를 배부했다.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는 6월 10일 화요일 12시부터 청운관 1층에서 신전떡볶이와 콜피스 80개를 배부했다. 통합 청춘 예술대는 기말고사 간식 지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각 과마다 간식 지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모든 간식 지원은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진행됐으며, 예정 시간보다 조기 마감됐다. 학우들은 배부 장소에 미리 도착해 줄을 서거나 시간을 맞춰 방문하며 간식을 수령했다. 특히 청운관 1층



에서는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질 정도로 대기 인원이 많았다. 행사 종료 후에는 각 단과대의 SNS를 통해 마감 안내 및 간식 사진이 공유됐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2025 Rookie Festa', 우승을 거머쥔 루키는?



▲ 출처: 하나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지난 6월 2일(월), 미래융합대학 중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미래 융합학부1·2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대상으로 '2025 Rookie Festa'가 개최됐다. 본교 인성교양대학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기획됐다. 6월 5일(목)까지 교내 스포스퀘어와 수인관에서 이어진 2025 Rookie Festa는 △농구 △발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피구 총 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세 학부 모두 행사에 참여한 총 19개 분반이 우승을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18·19분반이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위는 10·11분반, 3위는 12·13분반이 차지했다. 종목별 우승은 △농구 04·05·06분반 △발야구 07·08·09분반 △이어달리기 10·11분반 △줄다리기 01·02·03분반 △피구 18·19분반이 차지했다.

서경대학교 정수정 인성교양대학장은 "앞으로도 신입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에 적응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학우 인터뷰]

- 오승배 (미래융합학부2 25학번)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미래융합학부2 13분반 분반장, 학부대표 25학번 오승배입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분반장과 소통해 팀별 팀장과 저희 팀

의 종목별 주장, 선수 명단을 정하고 상금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Q. 체전 과정은 어땠나요?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 있나요?

A. 시험기간이다 보니 종목별 출전을 원하는 선수가 적어 선수 명단을 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반 친구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팀원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해 줘서 더욱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종합 3등을 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A. 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종합 3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피구, 발야구 종목에서 준우승한 것과 이

어달리기, 줄다리기, 농구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한 점이 종합 3등이라는 멋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 체전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어준 저희 팀원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Q. 미래융합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체전은 처음인데 더 나은 행사를 위해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나 아쉬운 점 등 건의 사항이 있나요?

A. 시험기간에 체전이 운영돼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체전 때는 시험기간을 최대한 피해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고 학교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 풋살과 족구 종목도 추가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서경SW아카데미 사업단, '2025년 1학기 제4회 프로젝트 경진대회' 개최

지난 6월 30일(월) 10시부터 16시까지 북악관에서 '2025년 1학기 제4회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서경SW아카데미 사업단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2025년 1학기 대학·기업협력형 SW아카데미 사업단 SW전문인재양성 교육 과정을 마치고, 프로젝트 평가 및 발표를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렀다. 북악관 205호에서는 클라우드·빅데이터 트랙, 211호에서는 AI·빅데이터 트랙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기준은 완성도 70점, 활용 가능성 30점으로 프로젝트 개발한 팀당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2인이 한 조를 이뤄 질의하며 심사가 이뤄졌다. 이후 평가의 시간을 거쳐 7월 1일(화)에 시상이 진행됐다. 대상과 금상은 각각 한 팀 스은상 두 팀 스은상 세 팀 스은상 코딩 테스트 상 두 팀 스은상 한 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스은상 200만 원 스은상 150만 원 스은상 100만 원 스은상 50만 원 스은상 코딩 테스트 상 30만 원 스은상 스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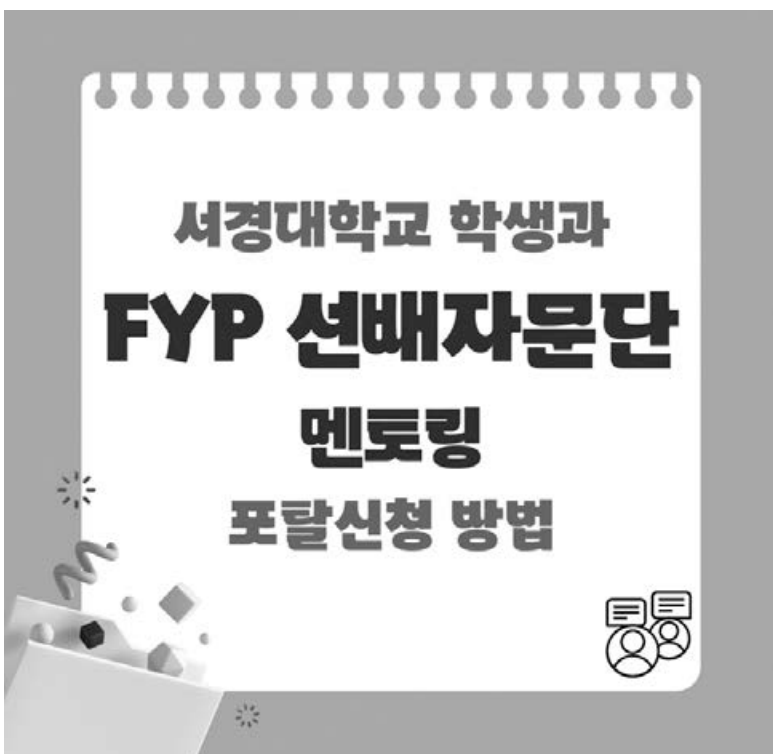
적발전상 30만 원이었다. 특히, 이번 해부터는 AI 분야 상이 신설돼 금상·은상·동상 각 한 팀씩 총 세 팀이 수상했다. 다만 AI 분야상은 AI기술융합연구교육센터장 상으로 상금 없이 상장만 수여됐다.

제4회 프로젝트 경진대회 영예의 대상은 김주영, 이태호 팀이 수상했다. 금상은 이상준, 최다운 팀이 수상했다. 은상은 김준하, 손유나 팀과 이세인, 이의준 팀이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동상에는 △박성연, 정수경 팀 △김채린, 조연제 팀 △김중하, 박종건 팀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코딩테스트상의 두 명은 윤정윤, 이한빈 학우로 최우수 성적발전상은 김찬호 학우가 수상했다. AI 분야상은 스은상 - 김주영, 이태호 팀 스은상 - 김준하, 손유나 팀 스은상 - 이세인, 이의준 팀이 수상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선배 업고 튀어' - 서경대학교 FYP 필수 선배자문단 운영



▲ 출처: 서경대학교 공지사항

서경대학교가 무전공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자문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FYP (First Year Program) 필수 참여 항목으로, 무전공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수 시 10포인트가 부여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에 5회 상담이 의무였으나, 학생들의 시간 부담과 학업 일정을 고려해 3회로 축소됐다.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선배들은 인문사회, 공학 계열 등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미래융합대학은 올해 처음 신설된 학부로 별도의 과방이 없어 학생들 간의 소통과 편의를 위해 은주2관 내에 'MD카페'를 개설했다. 무전공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선배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한, 학교 측에서 '야미(Yammi)' 어플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해 학생들이 음료를 마시며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자문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경 포탈에 로그인한 후 '학생역량개발시스템'에 접속한다. 이후 통합상담 메뉴에서 'FYP 선배자문단' 항목을 클릭한 뒤 원하는 전공의 선배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 시 상담 제목과 신청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선배자문단의 상담 확정 문자를 받아야 신청이 완료된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설문 조사를 시행해야 프로그램 이수가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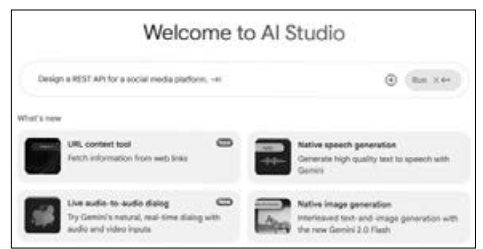
기자는 직접 선배자문단 상담을 받아보며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봤다. 상담은 MD 카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 진행됐으며, 선배자문단

은 학과 설명은 물론 학교생활과 진로와 관련된 고민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복수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 학위가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에게 학위 취득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준다.

상담에 참여한 미래융합학부1 A씨는 "기존 5회 상담은 솔직히 부담이 컸다. 하지만 학교의 배려로 3회로 축소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전공 학생들은 선배가 없어 학교생활과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선배자문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에 있어 숨은 팁을 많이 알게 됐고, 복수전공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나만의 최강 AI 비서"... 서경대, Google AI Studio·NotebookLM 이용 가능



▲ 출처: 구글

지난 5월 23일, 서경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교내 구글 Apps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Google AI Studio와 NotebookLM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Google AI Studio와 NotebookLM은 구글에서 개발한 AI 도구다. 구글 계정만 있다면 간단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다.

Google AI Studio는 ChatGPT와 같이 원하는 질문을 입력해 구글 AI인 Gemini 및 차세대 모델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포함한 멀티모달 AI를 지원한다. 멀티모달이란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학생들은 △PPT에서 사용된 이미지 생성 △촬영을 위한 데모 영상 제작 △강의 녹음본 요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

NotebookLM은 AI 기반 학술 작성 및 정리 도구다. 사용자가 올린 문서, 유튜브 영상 등을 Gemini가 분석해 질문에 답하고 창작물을 만들어 준다. 첨부된 문서에 기반해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고, 해당 출처를 인용구 삽입 방식으로 표시한다. 사용자에게 △북

잡한 자료 요약 및 핵심 파악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지원 △아이디어 발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먼저, NotebookLM이 조사 및 분석을 해야 하는 문서를 가지고 와 '소스 추가' 탭에서 소스 업로드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스튜디오' 탭에서 AI 음성 개요를 통해 두 명의 진행자가 대화하는 음성파일을 생성하고 내려받는다.

세 번째로, Google AI Studio로 이동하여 저장한 음성파일을 업로드하고,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질문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해당 문서의 주장을 요약하고 핵심 내용을 포함해 분석해 주세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해 학습 및 연구에 활용한다.

이처럼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정보는 프롬프트 작성을 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결과를 내보낼 수 있어 검토하는 자제가 필요하다.

정보전산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 서비스를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연구 및 업무 효율을 높일 바란다"고 전했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도서관 이용하시면 장학금 드립니다" 학업지원장학금이란?

서경대학교 학술정보관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학업지원장학금'을 운영하며 학술정보관의 이용을 고무시키고 있다. 학술정보관 측에서 학생들을 종합적 기준으로 평가해,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 1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서경대학교 재학생과 신, 편입생 모두에게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정보관 측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술관 이용 실적을 7월, 12월 중에 평가해 본인의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 접수·선정된다. 구체적인 장학금 선정 기준은 스은서 대출 횟

수 1~10위 중 도서 대출이 많은 이용자 △열람실 이용 시간이 많은 자 두 가지다. 학술정보관 측은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 산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경대학교 학술정보관 관계자는 해당 장학금의 취지에 대해 "학술정보관의 이용을 장려하고 독서 문화 진흥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장학 제도를 통해 단순한 공부 공간을 넘어선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장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 학생은 이 장학금에 대해 "장학금이라는 정적 강화를 통해 학업을 증진하

는 것은 정말 새로운 도전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생들이 장학금의 존재를 알려도 명확한 지급 방식과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접근성 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여 인원이 1명이라는 점에서도 학생들의 의욕 증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B군은 "학교 아래에서 자취해 도서관에 갈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받는 건지 몰랐다"고 의사를 밝혔다. 또, 군사학

과에 재학 중인 C군은 "장학금 지급 인원을 늘린다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답하며 아쉬운 점을 드러냈다.

AI 기술의 대중화와 더불어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해 가는 추세인 만큼,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업 능력 증진이 필요해지는 시대다. 이에 맞춰 이번 학업지원장학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 출처: 학술정보관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21대 대통령과 향후 과제... '통합'과 '경제'의 양대 난제</p>	<p>경제</p> <p>지하철 요금 '또' 올랐다... KTX·버스도 도미노 인상 예고</p>	<p>사회</p> <p>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목숨을 살렸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p>	<p>문화</p> <p>'벌써 60년' 한일 우정은 ing - 전용 입국 심사대 운영 확정</p>	<p>연예</p> <p>국가 유산급 영상으로 극찬받던 범접, '월드 오브 스우퍼' 최종 탈락</p>	<p>스포츠</p> <p>리버풀 디오고 조타, 결혼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21대 대통령과 향후 과제... '통합'과 '경제'의 양대 난제



▲ 출처: 뉴스1

지난 6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현정사상 두 번째 탄핵과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았다.

새 정부가 마주할 가장 큰 난제는 단연 국민 통합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p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이후 우리 사회의 진영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됐다. 22대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면, 전임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민심은 또다시 양극단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당선 후 취임식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 역시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 등의 발언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목숨을 살렸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 출처: 헤럴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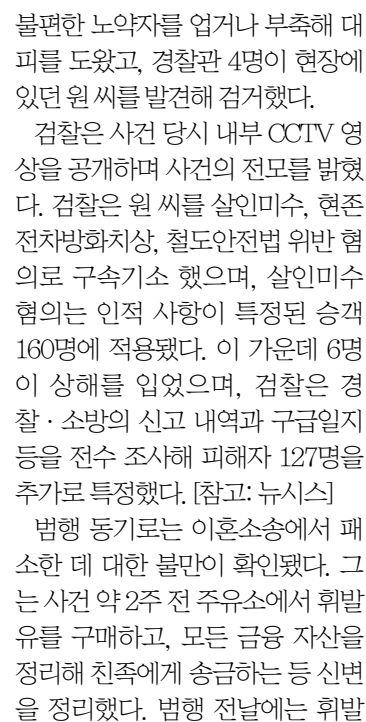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60대 남성 원모(67) 씨가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두 차례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휘발유는 약 6.8m에 걸쳐 퍼졌고, 일부 승객은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며 대피했다. 그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돼 있었으며,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채 맨발로 탈출해야 했다. 불은 삼시간에 번

과 보수 진영 출신 인물의 적극적인 포용은 눈여겨 볼 수 있겠으나 과거 정부들의 ‘협치’ 사례가 대부분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이끌어갈 중요한 과업을 짊어진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중의 신냉전 구도, 심화된 관세정책과 국내외 정치 격랑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지하철 요금 ‘또’ 올랐다... KTX·버스도 도미노 인상 예고



▲ 출처: 위키트리

지난 6월 28일 수도권 지하철 운임이 또 한 번 올랐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10월 7일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고자 했으나, 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이차례 두 차례에 걸쳐 150원씩 인상했다. 서울시는 당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지하철과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들 모두 기본요금이 조정된다”고 적용 범위를 밝혔다.

1,400원이었던 수도권 지하철 일반요금은 이로써 1,550원이 됐다. 다만 청소년·어린이 요금 인상은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5%, 어린이 약 65%)을 유지해 일반요금 인상 폭(150원)보다 소폭 낮다. 청소년 요금은 카드 기준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는 카드 기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씩 올랐다.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1회권의 경우 일반과 청소년 모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됐다. [출처: 오마이뉴스] 운임 조정 전 구매한 1회권은 환불 후 새로운 승차권으로 바뀌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에 반가운 소식이다. 당장 지난해 공사의 당기 순손실액은 7,237억 원으로 2023년 5,173억 원보다 2,064억 원 늘었다. 공사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올해에는 849억 원, 내년부터는 1,600억 원 이상의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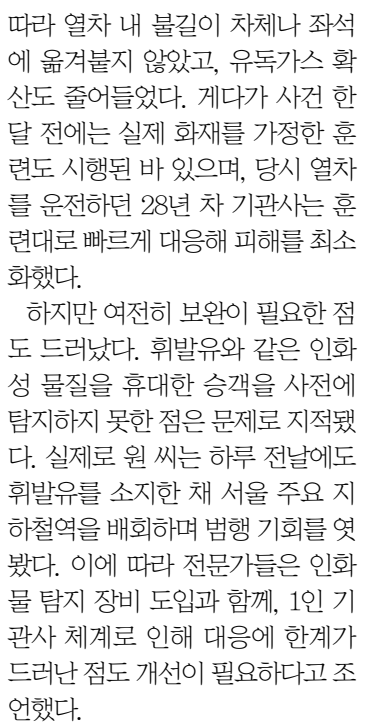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새 정부에 보내는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2%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명확한 조건과 연결된다. 국민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 회복·민생 안정’ (41.5%)을 꼽았고, 이는 ‘검찰·사법 개혁’ (20.4%)이나 ‘국민 통합’ (12.8%) 등 다른 과제들을 크게 앞선 결과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등을 언급했다. 현재의 여대야소 국회는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부재한 화합 없는 국정 운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제도화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앞으로 그가 강조한 여야의 화합과 양극단에서 대립하는 국민의 통합, 민생 경제 회복에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 새 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외의 혼란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다양한 장애물에 슬기롭게 대처할지 실수를 범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힘의 논리가 팽배한 세계경제와 흔들리는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 통합을 달성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할지 이 대통령의 선택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벌써 60년’ 한일 우정은 ing 전용 입국 심사대 운영 확정



▲ 출처: 중앙일보

한일 양국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 심사대’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 운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한국에서는 김해공항, 김포공항 두 곳에서 일본인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했다. 일본 역시 후쿠오카공항과 하나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포공항과 하나다공항 제3터미널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용 입국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모든 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입국 전 미리 전자 입국 신고를 완료해야 했다. 완료 후 전자 입국 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 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 입국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입국 시 해당 화면 또는 캡처본을 입국장 안내원에게 제시하면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했다. 등록 후 해당 사이트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QR코드 화면을 입국 심사원에 게 입증하면 됐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전 유의할 점도 존재했다. 운영시간은 09~16시로 제한됐으며, 모든 입국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처음 방문하는 입국객은 이용이 불가했으며, 입국일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단기체류자만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 심사대’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 운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한국에서는 김해공항, 김포공항 두 곳에서 일본인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했다. 일본 역시 후쿠오카공항과 하나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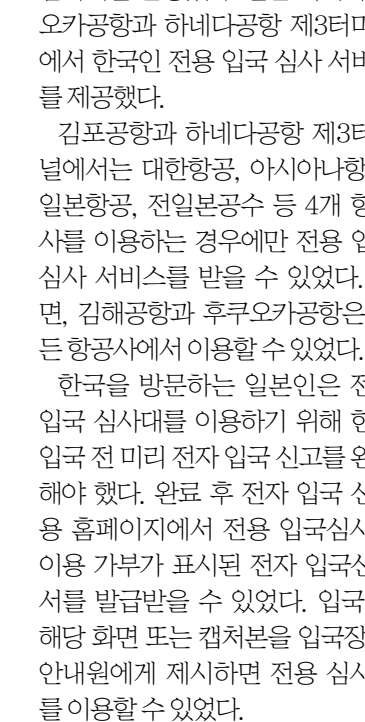
김포공항과 하나다공항 제3터미널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용 입국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모든 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입국 전 미리 전자 입국 신고를 완료해야 했다. 완료 후 전자 입국 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 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 입국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입국 시 해당 화면 또는 캡처본을 입국장 안내원에게 제시하면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했다. 등록 후 해당 사이트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QR코드 화면을 입국 심사원에 게 입증하면 됐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전 유의할 점도 존재했다. 운영시간은 09~16시로 제한됐으며, 모든 입국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처음 방문하는 입국객은 이용이 불가했으며, 입국일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단기체류자만 활용할 수 있었다.

엔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 출처: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현정사상 두 번째 탄핵과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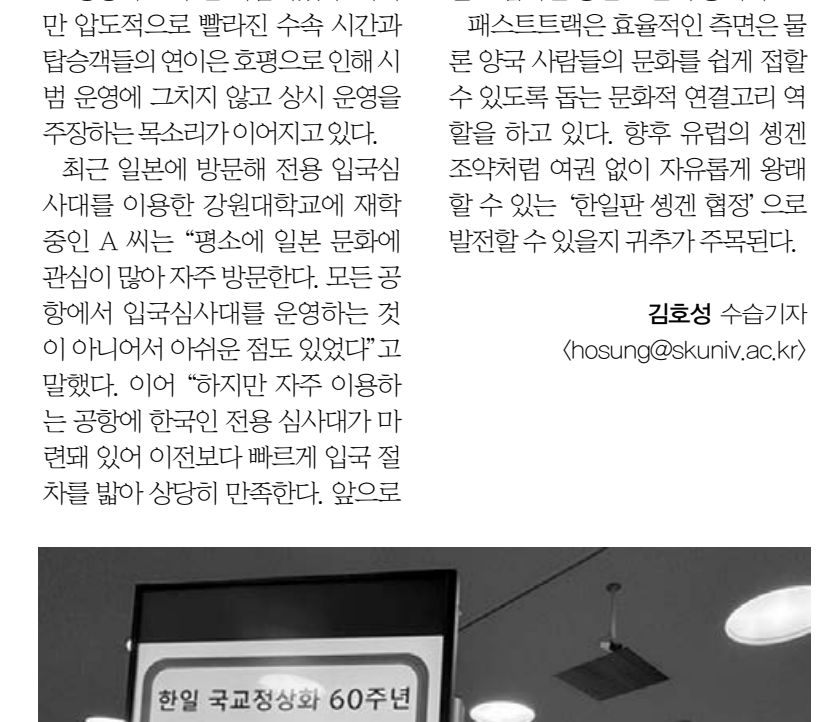
새 정부가 마주할 가장 큰 난제는 단연 국민 통합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p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이후 우리 사회의 진영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됐다. 22대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면, 전임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민심은 또다시 양극단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당선 후 취임식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 역시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 등의 발언

한편 수도권 지하철에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택시와 철도 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14년째 동결됐던 철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운임을 서울~부산 기준 59,800원에서 70,000원으로 약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철욱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공공재적 성격을 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인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출처: 경인일보]

한일 우정은 ing



▲ 출처: 뉴스1

한일 양국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 심사대’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 운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한국에서는 김해공항, 김포공항 두 곳에서 일본인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했다. 일본 역시 후쿠오카공항과 하나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포공항과 하나다공항 제3터미널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용 입국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모든 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입국 전 미리 전자 입국 신고를 완료해야 했다. 완료 후 전자 입국 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 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 입국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입국 시 해당 화면 또는 캡처본을 입국장 안내원에게 제시하면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했다. 등록 후 해당 사이트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QR코드 화면을 입국 심사원에 게 입증하면 됐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전 유의할 점도 존재했다. 운영시간은 09~16시로 제한됐으며, 모든 입국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처음 방문하는 입국객은 이용이 불가했으며, 입국일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단기체류자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한 줄 요약 좀 해주세요”... 짧은 콘텐츠 전성시대

한때 우리는 TV 드라마에 열광했고, 종이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긴 글 대신 짧은 글, 글 대신 영상, 영상도 1분 안팎으로 줄인 영상을 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파에 앉아 편성표를 보며 긴 호흡의 드라마나 예능을 기다리지 않는다. 1분 이하의 동

영상인 '숏폼'을 등하곳길, 쉬는 시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시청한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의 소비율이 58.1%에서 2024년엔 70.7%로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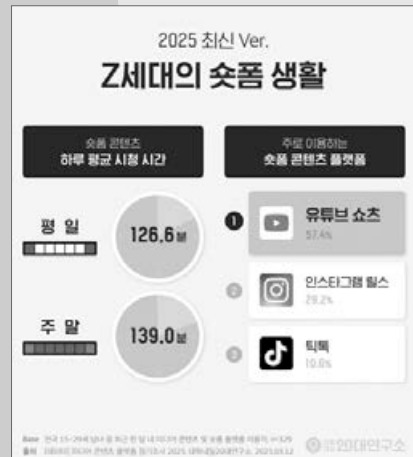
글에서 영상으로의 변화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잡코리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0대의 32.6%가 평

소 책을 읽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2 언론수용자 조사'를 한 결과 20대의 종이신문 열독률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12.4%인 50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는 활자를 통해 정보를 천천히 이해하는 방식보다, 곧바로 시각적 자극을 주는 것에 익숙해진 세대의 모습을 드러낸다.

다만 20대의 92.3%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시청한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 매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매체 인식률은 스마트폰 75.3%, TV 22.6%로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습관이 호흡이 긴 콘텐츠에서 단기간에 즐길 수 있는 짧은 콘텐츠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경향이 대학생에게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집중이 필요한 지면 신문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짚어본다.

“1분이면 충분하지” MZ세대가 짧은 콘텐츠를 택한 이유?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하는 제작물 선호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를 보면, Z세대가 평균적으로 평일에 126.6분, 주말 139.0분을 숏폼 콘텐츠를 보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단편 콘텐츠는 단기간에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숏드라마가 있다. 1~3분 정도의 분량에 기승전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빠른 전개를 원하는 시청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한다. 긴 콘텐츠보다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짧은 콘텐츠가 제공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에서 MZ세대는 시간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 영향으로 간식을 먹듯 짧은 시간 동안 간편하게 콘텐츠를 감상하는 현상이 스며들며 문화가 생겼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3%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시청자는 언제 어디서나 글과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게다가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도 발달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제작물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Z세대가 긴 호흡으로 감상하는 기존의 방식과 더욱 멀어지게 됐다. 생활상의 변화와 기술적 발전, 그리고 기업과 제

작 생태계의 혁명이 맞물린 결과 숏폼이 확산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숏폼 영상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20 탁트트렌드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찰린지 문화, 집에서 운동하는 영상, 요리 등 '집콕' 해시태그 영상이 무려 15만 개 이상 제작됐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소통하면서 영상 제작도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대중들은 짧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게 됐고, 숏폼 영상은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숏폼 영상의 흥행을 가속하고, 미디어 소비와 제작을 변화시켰다.

짧은 콘텐츠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에만 익숙해지면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짧은 것은 우리에게 속도를 주었지만, 깊이를 주지는 못했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으로서 자신만의 시선과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신문과 같은 긴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

'3줄 요약'도 긴 요즘 시대... 대학생들의 긴 글 기피 현상



출처: 버클리오피니언

요즘 대학생들은 긴 글보다 짧은 글을 선호한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루하고 복잡한 긴 글을 기피하고 간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압축해 놓은 짧은 글을 선호한다.

예시로 다양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장문의 글이 올라오면 '3줄 요약'이라며 요약된 글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3줄 요약을 첨부해도 그것 또한 길다며 이에 읽는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긴 글 기피 현상은 장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은 들인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즐거움의 가성비가 좋다. 장문의 기사나 논문을 시 등을 활용해 핵심만 추려 정보를 얻거나 소셜책이나 시집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클라볼 수 있다.

반대로 단점은 짧은 글에 익숙해져 긴 글을 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긴 문서 등에 이질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긴 글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신문의 열독률은 전체적으로 글의 마지막 부분에 3줄 요약을 첨부해도 그것 또한 길다며 이에 읽는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문과 같은 긴 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뇌는 근

육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면 그 기능이 강화된다. 하이다 뉴스에 따르면 독서와 같이 긴 글을 읽는 행동은 '뇌 기능' 활성화를 촉진해 건강한 뇌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다. 글을 읽을 줄을 알지만, 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신 문명 시대에서 긴 글을 읽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문을 만드는 우리 신문사의 입장에서 독자들이 우리의 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향유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그러나 독자로서는 인공지능 챗봇이나 간단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굳이 시간을 들여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발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이미 식어버린 정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신문사 또한 그 점을 인지하고 있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교내 소식과 사회 전반의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신문사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고 독자 여러분과 기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 구축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긴 글을 무작정 기피하기보다 짧은 글과 동일선상에 두고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선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짧은 글에선 느끼지 못한 새로운 매력과 재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무 익숙해 지루해진 짧은 글에서 벗어나 친숙하지 않은 길고 다양한 글을 접한다면 분명 더욱 즐거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자보단 영상이 가까운 세대... 청년들의 독서 현황을 묻다

[대학생 인터뷰] - 신동찬 (23·남)

Q. 평소에 신문을 즐겨 읽는가?

A. 실물 종이 신문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은 굉장히 자주 보는 편입니다. 무료 뉴스 통신사 세 곳이나 속보 알림 설정도 해놨어요.

Q. 지면 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A. 뉴스의 형태가 요즘에는 TV, 유튜브, 카드뉴스 형태로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독률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담아낸 영상 뉴스도 요즘엔 넘쳐나니까요. 또, 기성 언론 기사조차 정정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람들도 신문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커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Q. 대학생 열독률 감소에 관한 생각은?

A. 짧은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독서 활동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것에 치중해 자세히는 습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은 부분도 아쉽고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정보 신뢰성도 떨어지고 어떤 정보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길게 써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상매체가 발전하며 읽으려

는 행동 자체가 시도하지 않으니 열독률 감소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대학생 인터뷰] - 익명(21·여)

Q. 평소에 신문을 즐겨 읽는가?

A. 신문은 너무 길고 딱딱해 잘 안 읽어요. 요즘은 종이 신문 읽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저는 뉴스 요약 앱이나 SNS 카드뉴스, 쇼츠로 짧게 요약된 거 보는 편입니다.

Q. 책 같은 긴 글도 잘 안 읽는가?

A. 네. 긴 글은 좀 부담돼서 책처럼 양이 많은 것은 시도도 안 하게 돼요. 핵심 요약이나 후기 영상, 밈으로 정리된 내용이 훨씬 보기 편하고, 시간도 아끼고, 재밌고, 이해도 빨라요. 읽는 건 정보 흡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냥 글보다 영상, 영상보다 짧은 영상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길면 바로 다음으로 넘기니까요.

Q. 글보다는 영상, 영상보다 짧은 영상이 좋다고 했는데, 긴 콘텐츠보다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유는?

A. 그냥 집중이 안 돼요. 긴 콘텐츠는 시작도 전에 피로하고 다 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부터 생각합니다. 반면 짧은 콘텐츠는 핵심만 나오고 금방 끝나니 부담 없고, 보다가 지루하면 그냥 넘기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 하나에 오래 집중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해서 짧게 정리된 거 보다가 관심이 생기면 그때 좀 더 찾아봅니다. 또, 짧은 콘텐츠는 대부분 밈이랑 짤, 빠른 편집과 동독성 있는 음악, 웃긴 자막 등이 있어 더 재밌어요. 긴 건 그런 자극이 약해서 금방 시선이 떠나죠.

Q.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등의 독서 활동에 대한 생각은?

A. 책이나 신문 같은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같습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바로 요약이 나오고, 오디오북이나 책 리뷰 영상을 보면 굳이 직접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독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고 즉각적인 재미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돼요. 책 읽는다고 내 삶이 금방 달라지진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신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바로 재미있고, 감정도 움직이니까 더 손이 갑니다. 가끔은 종이 넘기는 감성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오늘 말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독서가 쓸모없진 않지만 당장 손이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효율, 재미, 속도가 더 중요한 시대라서요.

신문과 긴 글, 이제 끝난 걸까?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



출처: 서울신문

앞의 이유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신문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매질의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실시간 알림과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서 신문을 포함한 전통적인 긴 글 콘텐츠는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앞으로의 변화를 내다보기 위해선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20세기 전반기 기간의 라디오와 TV의 대두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에 책이 불필요한 시대가 올 것

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다. 사람들은 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감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의 사유하기 위한 욕구는 글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책을 연간 12권 이상 읽으며 긴 글을 즐기는 인구의 비율은 5~10% 내외다. 한국에서 500만 명 정도는 긴 글을 읽는 것을 즐긴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 비율은 2000년대부터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오히려 증가 중이다. 또한, 일본 문화계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의 인구 중 5% 정도는 법으로 독서를 금지해도 책을 읽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그의 자서전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고정된 긴 글의 수요층은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다.

긴 글이라는 콘텐츠는 이제 그저 '롱폼 콘텐츠'가 아닌 '정제된 콘텐츠'라는 특성을 부각해 강점으로 발휘해야 한다. 단순히 길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 그 안에 응축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자가 느끼는 경험이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지면 신문도 마찬가지다. 독자에게 있어 접근성을 높이는 사용자 경험(UX)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3년 열린 미디어 정책 포럼에서 "전통 매체와 긴 글 콘텐츠는 속도가 아니라 품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읽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면 신문 같은 긴 글 콘텐츠가 살아남기 위해선, 늦게 전하더라도 더 깊게 전달하는 매체로 정체성 전환이 필수적이다. 단지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독자에게 주는 글로 거듭나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짧고 간결한 콘텐츠가 대체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디지털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는 순식간에 쏟아지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긴 글이나 복잡한 설명보다 즉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자리 잡게 됐다. 그렇다고 긴 글이나 지면 신문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독자의 단순한 집중력 저하나 지식수준 하락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 시장원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

뤄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 과잉 시대에서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 여러 생선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현재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인 신문과 긴 글의 가치와 역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에 기반한 깊이 있는 글은 더욱 소중해졌다. 짧고 빠른 정보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짧은 콘텐츠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감은 때때로 이러한 긴 글들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했다. 긴 콘텐츠는 단순

히 길이의 기준으로 평가할 게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논리와 깊이 있는 정보를 통해 독자에게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주는 특징은 짧은 콘텐츠가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그저 오래된 매체가 아니다. 팩트의 나열을 넘어서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본래 신문이 가진 힘이다. 짧은 콘텐츠가 여러 정보를 공급할 때, 신문은 그 뿌리를 파헤치는 역할을 한다. 정보의 본질을 향해 깊이 들어가는 태도가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형식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 정보 과잉으로 인해 정보를 빠르게 소비하고 넘어가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를 모두 수용하는 게 아닌, 읽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성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보를 걸러 듣는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발단이 마련된다.

긴 콘텐츠와 짧은 콘텐츠 모두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날로그 신문과 긴 콘텐츠는 변화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가 유효하고 더욱 빛나고 있다. 과거의 산물이 아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사이에서 자칫 잊히기 쉬운 본질을 다시 되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매체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이다. 속도를 쫓는 게 아니라 깊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중시에 뒀다 한다. 긴 글과 지면 신문이 과도기에 놓여 있는 지금, 앞으로의 변화에 모두가 주목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레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나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몸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건강을 챙기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한 다이어트는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고, 보다 프로필 촬영이나 피트니스 콘텐츠의 유행은 운동하는 몸매에 대한 동경을 부추긴다.

그 중심에는 단백질 보충제, 이른바 프로틴이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편의점에 가면 단백질 음료, 프로틴 바, 고단백 간식 등 온갖 프로틴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로틴은 근육을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필수품처럼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잔씩 챙기는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운동이나 식단 관리 없이 단백질만 챙기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웨이트를 몇 번 하고 나면 보상이라든가 프로틴을 찾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근력운동은 간헐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제품을 교묘하게 챙기는 반복 루틴이 반복

된다. 단백질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자기 몸 상태나 활동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이어트 보조제와 시술 역시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내세운 약물이나 시술은 식단이나 운동보다 손쉬운 선택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역시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진짜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 취재부는 프로틴을 중심으로 한 다이어트 소비문화를 들여다보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감량의 의미를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새롭게 불어오는 운동 열풍... 청년들의 운동 현황은?

운동을 통한 자기 관리가 유행으로 번지며 2030세대에 운동 열풍이 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규칙적 체육 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조사'에 따르면, 20대 59.2%, 30대 64.8%가 주 1회 이상 운동하며, 주 2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도 각각 48.7%, 55.5%로 나타났다. 자연스레 단백질 제품의 소비도 늘어났다.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20대의 85.1%는 단백질·프로틴 제품을 섭취해 봤다. 포장 단백질 식품의 경우 20대 경험률은 57.5%, 30대 43.8%로 전체 평균인 38.5%를 훨씬 앞지른다. 분말 형태와 바·스낵 형태 또한 20대 경험률이 각 51.7%, 58.0%로 전체 평균인 약 36%를 크게 웃돌며, 30대는 각 36.5%, 47.2%다.

또, 20대 45.5%, 30대 51.1%로 이들 모두 다이어트를 위한 가벼운 식사나 간식 대응으로 단백질 제품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인 36.3% 대비 많다. 특히 20대 47.3%는 운동 후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 제품을 먹는다고 답했다.

평소 운동을 즐겨한다는 대학생 김민지(23·여) 씨와 오현주(23·여) 씨를 만나봤다. 김 씨는 "학기 중엔 주 1~2회 러닝, 방학 중엔 주 4~5회 헬스장에 간다"며 수영도 월 2~3회 한 시간씩 병행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주 2~3회 한두 시간씩 테니스를 친다"고 말했다.

즐거이는 운동은 다양하다. 김 씨는 "작년에는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졌었고, 올해는 러닝과 수영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꾸준히 달리는 것과 25m 레인 완주가 목표라고도 전했다. 오 씨는 "예전에는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간간히 했는데, 요즘은 테니스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노력한 만큼 실력이 눈에 띄게 느는 순간들이 있어서 더 몰입하게 된다"고 얘기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인터뷰에서 만나볼 수 있다.

Q. 운동을 하는 이유는?

A(김민지). 가장 큰 이유는 체력이에요. 학기 중에는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체력이 부족해서 늘 다 제대로 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쉽게 불친절해지고, 학업 성적도 떨어져 체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달린다' '완주한다'에만 집중해 잡생각이 없어지고 성취감도 느껴져서 좋아요. 생각 정리와 동시에 몸도 건강해지니 하

싫어도 결국 꾸준하게 돼요. **A(오현주).** 건강을 위해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은 성취감과 경쟁심이 더 큰 이유 같아요. 테니스는 입문 장벽이 높은 편이라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도전 욕구를 자극했어요. 꾸준한 연습 없이는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점점 더 몰입하게 되죠. 탐구할 지점이 많은 스포츠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또,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도 들고, 뿌듯하기도 해서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보다 프로필 열풍으로 인한 체육 활동과 단백질 보조제 유행에 대한 생각은?

A(김민지). 과식을 사전을 위해 무리하게 굶으며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유행이 그렇듯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춰 보조제를 먹고 운동을 즐긴다면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A(오현주). 운동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 자체는 멋지지만, 외적 결과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보다 프로필 목적의 운동은 일상적인 운동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극단적으로 보여 건강에 독이 될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과도한 보조제 섭취는 몸에도 부작용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운동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가꾸는 계기가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Q. 단백질 보조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은 경험이 있는가?

A(김민지). 아직 없어요. 식욕이 많지 않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기보다 그냥 안 먹거나 식사를 줄이는 편이에요. 프로틴은 일반 식사로는 단백질 섭취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병행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A(오현주). 예전에는 단백질 셰이크를 자주 마셨습니다. 당시에 는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었기에, 단백질 보조제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반면,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어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은 경험은 없습니다.

과도한 근육 관리, 병원이 말하는 위험 신호

단백질 보충제와 근력운동이 필수가 된 요즘, 무분별한 섭취와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취재부가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임상병리사 인터뷰] - 김나래, 30세

Q. 최근 병원에 과도한 근육운동 또는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실려 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지. 환자들의 연령대나 특장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A. 여름을 앞두고 체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근력운동 후 횡문근 용해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확연히 늘고 있습니다. 횡문근 용해증은 격렬한 운동이나 외상, 약물 등에 의해 횡문근(골격근)이 급격히 파괴되며, 이에 따라 근육 세포 안의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유출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오글로빈이며, 이 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 급성신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주로 "두통" 소리가 나는 파열감과 함께 극심한 근육통, 그리고 플라색에 가까운 소변을 호소하는데, 이는 근육세포가 손상되며 유출된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늦을 경우 투석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 소변 색이 평소와 다르거나 전신 근육통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특히 20~30대 남성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은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강도 근력운동을 시작하거나, SNS나 유튜브에서 본 운동 루틴을 무리하게 따라 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Q.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보충제(프로틴)의 부작용 사례도 자주 접하는지.

A. 단백질 보충제 자체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섭취 방법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거나, 보충제를 다량 섭취할 경우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단백뇨나 신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중 제품은 식약처 인증 없이 판매되는 일도 있어, 중금속·스테로이드 유사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나 이뇨제가 몰래 첨가된 제품을 섭취한 후 간 수치 이상, 탈수,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Q. 단백질 보충제 제품을 섭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성분이나 사용법은.

A.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중, 활동량, 신장 기능 등을 고려해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해

야 할 성분으로는 인공 감미료, 카페인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고농도 크레아틴, 정제된 식물성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간혹 '땀막 효과'를 강조한 제품 중에는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이나 부스터 계열 자극제가 함유된 경우도 있어, 반드시 성분표와 인증 여부(식약처 인증, GMP 인증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만 따로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해야 영양소 흡수율도 높고, 위장에 부담도 적습니다.



▲ 출처: 식품음료신문

보조제와 시술로 덕지덕지... 건강한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펜터민에서 위고비까지... 다이어트약의 위험한 진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약과 보조제를 누구나 클릭한 번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허위 혹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부작용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또한 진료 없이 비대면으로 비만 치료제를 쉽고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수 있었기에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은 나비약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펜터민은 비만 치료를 위해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다. 펜터민은 대표적인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로 마약류에 속한다.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해 단기간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또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과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취급해야 하는 약물로 분류된다. 펜터민은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복용량을 엄격히 준수하고, 꼭 필요한 환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면서 다이어트약으로 큰 인기를 끌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손쉽게 구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약물을 복용하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의 없이 장기간 섭취가 가능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펜터민은 우울증과 불면증, 환청 등 다양한 부작용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복용 시 중독을 유발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펜터민의 중독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위고비가 등장했다. 위고비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비만 치료제로 승인되어 널리 알려졌다. 위고비의 주성분은 GLP-1 유사체인 세마글루타이드로 혈당 조절을 돕고 식욕을 억제한다. 펜터민뿐만 아니라 위고비 또한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비만 환자의 체중 조절을 위한 치료제로만 처방돼야 한다. 그러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수요가 급증해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는 등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을 제한했다. 그러나 여전히 처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처방을 받아 부작용 및 오남용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위고비와 관련된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만 94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고비를 장시간 복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각한 수준의 급성 췌장염, 시신경 손상, 흡인성 폐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펜터민뿐만 아니라 위고비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 출처: 한겨레

건강하고 효과 있는 다이어트 방법

부적절한 약물의 도움 없이도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존재한다. 올바른 건강한 신체에 위한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식단을 병행하는 꾸준한 운동이다. 식단은 다이어트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하루에 운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이 음식을 통해 손쉽게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30분 ~ 1시간 동안 걸을 때 140~280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고 한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찾는 바나나가 보통 88칼로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운동을 통해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단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시대 웹진에서는 다양한 컬러푸드를 추천한다. 토마토, 빨강 파프리카, 사과, 고추 등 빨간 식재료에는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고구마, 노랑 파프리카, 바나나, 파인애플 등 노란색 식재료는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지, 포도, 블루베리 등 보라색 식재료 중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열매류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지방의 연소를 도와 비만을 예방해 주고 노화 방지 효과도 뛰어나다.

식단 이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먼저

얼마만큼의 체중을 감량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파악해 러닝이나 수영, 중량 운동 등 적절한 운동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유튜브 운동 채널이나 구립 스포츠 센터, 개인 헬스장 등 다양한 방법 중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확실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병원을 통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위고비나 삭센다와 같은 약물은 식욕억제제로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과 정해진 복용법을 준수해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이용하고 패스트푸드 대신 슬로푸드를 선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더 걷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형성한다면 다이어트는 서서히 일상의 한 부분으로 녹아들어나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좋은 음식과 올바른 운동을 통해 장기간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다. 단기간의 체중 감소에 눈이 멀어 극단적인 원푸드나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성급하게 시도한다면 부작용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요현상을 방지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체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자.



▲ 출처: 더 코리아 헤럴드

지금까지 다이어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다. 취재부는 요즘 젊은이들의 운동 관련 관심도 증가와 단백질 보충제 과다 섭취의 부작용, 다이어트약 남용의 문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등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소개했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신체와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

소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약에만 의존하는 약물 남용이나 단백질 보충제의 과소비는 오히려 건강한 신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현재 다이어트약 골드러시 시대에 살고 있다. 각종 비만 치료제는 식욕 억제나 지방분해효소 억제

등의 효과를 내세워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항비만 약물은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움을 주지만 남용한다면 중독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공존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 다이어트

또한 보조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운동 후 이제는 트렌드가 돼버린 단백질 보충제 섭취 시에도 정량에 맞게 복용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자. 다이어트라는 탐은 높아 보이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탐의 정상을 오르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바라본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정상으로 나아가자. 다이어트는 결국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꾸준히 수행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당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한다.

기고칼럼



글쓰기와 친숙해지는 방법

이복규 (영예교수/국문학)

대학 생활에서 글쓰기는 중요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각종 리포트는 물론 자기소개서 또는 에세이를 잘 써야 하니, 글쓰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한다.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 글쓰기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 MIT 공대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글쓰기라고 한다. 왜?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그 내용을 멋진 글쓰기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 고민이라는 것!

대학생이 글쓰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간 특독한 바를 토대로 몇 가지만 말해 보겠다. 첫째,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챗GPT, 퍼플렉시티 등의 AI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명령한 조

건에 맞추어 AI가 쓴 글을 읽다 보면, 어떻게 글을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지, 글에 대한 감각이 길러질 수 있다. 제미니의 deep research 앱을 이용하면 참고문헌까지 밝혀 주어, 학술적인 글을 쓰는 요령도 익힐 수 있다.

이 방법을 쓸 경우 유념할 게 있다. AI가 써 준 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자신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도 저촉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표현 역량을 기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I가 작성한 초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녹여 넣어 자신의 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수정 지시를 내리거나 자신이 고쳐 나가다 보면 자신의 글로 탈바꿈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체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AI에 의존하지 않고, 글쓰

기에 친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글쓰기 습관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도 있듯, 내 경우도 그렇다. 2014년부터 10년째 1천여 독자에게 거의 매일 아침톡을 보내고 있는바,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비결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꾸준히 써 온 일기가 그 저력의 하나다. 2002년부터는 개인 홈페이지에 내 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올리고 있다. 자꾸만 쓰다 보니, 글 쓰는 게 자연스럽다.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다. 쓰다 보면 좋아진다. “닭이 천 마리면 봉황이 한 마리”라고 하지 않던가? 명필인 왕희지도 하도 붓글씨 연습을 많이 한 나머지 집안의 연못이 먹물처럼 검어졌다는 고사도 기억할 일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일기를 쓰든지,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든지, 아침톡을 보내든

지, 부지런히 매일 써야 한다. 단 한 문장이라도 자꾸만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

셋째, 많이 읽어야 글쓰기가 편해진다. 생애 물이 고이면 저절로 흘러넘치듯, 많이 읽어 글 쓸 거리가 지 않는 비결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꾸준히 써 온 일기가 그 저력의 하나다. 2002년부터는 개인 홈페이지에 내 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올리고 있다. 자꾸만 쓰다 보니, 글 쓰는 게 자연스럽다.

다양한 책, 칼럼, 기사를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암송하거나 베껴면 좋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던가? 자신이 접착한 아름다운 문장, 매력적인 문장을 충분히 음미하고, 모방하고 변주하다 보면 그 자신만의 문장을 쓰게 된다. 나에게서 인생의 책이라 할 만한 책이 몇 가지 있다. 그 책들을 여러 번 되풀이해 읽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문장들이 뇌리에 새겨져, 내 글을 쓸 때 창의적으로

변용되곤 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넷째, 메모를 습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기억해 둔 게 많아야 글을 쓸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다. 나는 메모광이다.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활용한다.

vFlat Scan 같은 문자 인식 앱을 활용하면 입력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해당 텍스트를 촬영하는 즉시 문서로 전환돼, 내가 작성한 문서처럼 자유자재로 편집해 쓸 수 있으니 놀라운 세상이다.

글쓰기에 뜻을 두면 그 길은 많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글쓰기와 친밀해지기를! 그래서 나처럼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의 눈 |

현 여행 가고, 새 여행 와라! ‘패키지여행’의 화려한 부활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행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 4일제의 단계적 도입은 여행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주5일제의 본격 시작과 함께 해외여행자 수가 크게 성장한 바있기에 이는 타당한 예측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법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155만 명이던 출국자 수는 2019년 2,692만 명, 2024년에는 2,872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회복 국면을 넘어, 여행 수요가 다시 성장세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참고: 데일리한국]

이처럼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러 정책·환경적 요인이 합

세하면서 여행,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중장년층의 전용물로 여겨지던 단체 여행 상품, 즉 ‘패키지여행’ 이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뻑뻑한 일정, 쇼핑 강요, 일제 도입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패키지여행은 여행사 중심으로 짜인 일률적인 일정에 참가자가 따르는 구조였다. 여행의 자유도는 낮고, 비용은 저렴하지만 만족도 역시 대부분 낮았다. 그러나 최근의 패키지여행은 다르다. ‘테마형’ 혹은 ‘세미’ 패키지여행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취향과 일정 부분 자율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행 상품으로 재탄생했다.

일례로 국내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최근 저가형 상품 대신 고부가 가치 테마형 패키지 비중을 늘렸다.

‘산악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트레킹 투어’나 ‘몽골에서의 전통 유목 생활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경제에 따르면 해당 상품들은 MZ 세대의 호응을 얻어 하나투어는 지난해 전년 대비 57% 증가한 214만 명의 패키지 송출객을 기록해 5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더불어 패키지여행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일부분 자율성을 제공하는 ‘세미 패키지여행 상품’ 또한 각광받는다. 그룹 여행 서비스 ‘워너고트립’은 직장인 또는 20대만 참여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해당 여행사는 연령 및 성별 제한과 함께, 한 여행 상품당 4~8명 가량의 적은 인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결성된 여행 팀 안에서는 일정 부분 자유 여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미 패키지여행의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6월 몽골에 다녀온 대학생 최민서(가

명, 22세) 씨는 “ 그동안 해외여행은 자주 다녀왔지만, 모르는 사람들과의 여행은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패키지여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처음엔 의심도 들고 불안했는데, 여행 지인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구체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본 인적 사항 외에도 자기소개나 성격유형 등 다양한 부가 정보를 수집해 그룹을 짜는 모습을 보니 회사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신경 쓴다고 느껴 걱정 없이 다녀왔다”고 전했다.

취업에 성공해 입사를 앞둔 남원창(가명, 27세) 씨는 “패키지여행 덕분에 짧은 여유 시간 안에 최소한의 준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조면이지만 비슷한 나이대인 분들과 함께 하니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동고동락해 더 풍성한 여행이 됐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내비쳤다. 그는 “함께 여행한 동행분들 중에서 사랑을

찾았다”고 덧붙이며 얼굴을 붉혔다.

책 ‘모든 요일의 여행’의 작가 김민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택을 한다.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거기에 언제 있을 것인가. 여행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끝없이 교차한다. ‘나의 시간’을 선택하고 ‘나의 공간’을 선택하여 그 둘을 직조하면 비로소 ‘나의 여행’의 무늬가 드러난다.”고,

패키지여행은 여기에 한 가지 선택지를 더한다. 바로 함께할 사람을 미리 정하지 않으므로써,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낯설지만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동행은 아마 여행의 기억과 향수를 한층 짙게 할 것이다. 그렇게 패키지여행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을 함께 엮는 또 하나의 여행법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 기자의 눈 |

불완전함의 미학, ‘재즈’라는 삶의 은유

올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현장은 날씨만큼이나 다채로웠다. 예정에 없던 불비와 축축한 바람, 즉흥적으로 구성된 셋리스트, 무대 위 뮤지션들의 눈빛, 이 모든 요소는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어우러졌다. 그 안에서 나는 재즈라는 장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규칙 바깥의 감각, 정형화되지 않은 흐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이 음악은 통제보다는 해방, 완성보다는 과정에 가까웠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은 재즈를 “혼란과 갈등 속의 아름다

움”이라고 정의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미화가 아니다. 실제로 재즈는 연주자들이 서로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새로운 리듬과 화성을 만들어내는 음악이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완성된 형태보다는 무한한 변화와 대응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것은 협업이자 대화이고, 동시에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고집이기도 하다.

재즈는 기본적으로 ‘불확정성’을 전제로 한다. 악보와 박자를 따르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다음 음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 자유로움은 혼란을 수반하지만, 그안

에서만 가능한 질서가 있다. 결국 재즈는 통제된 즉흥성과 반복되는 실험의 총합이다. 익숙한 조화는 피하고, 낯선 음색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이는 재즈가 예술적 장르를 넘어, 일종의 사고방식이자 철학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악 이론적으로 보아도, 재즈는 고전적인 화성 구조에서 벗어나 의도적인 변형을 추구한다. 음과 음 사이의 불협화음조차 하나의 표현으로 수용한다. 김민주 작家的 ‘재즈의 계절’, ‘재즈가 너에게’ 같은 서적들 역시 이 장르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 감정, 불완

전한 관계들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완벽한 구조를 추구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풍성한 서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나는 재즈를 통해 ‘살아간다’는 감각을 자주 되짚는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현대인의 삶과는 달리, 재즈는 불완전한 상황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재즈의 연주는 때로 우연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절제된 실험이고, 그 안에서 감정과 논리가 공존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미완성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안에서도 흐

름은 만들어진다. 재즈는 바로 그 가능성을 말해준다.

결국 재즈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다. 불완전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조화와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재즈는 우리의 삶과 닮아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완성도 어렵다. 그러나 그 불완전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연결을 만들며 살아간다. 재즈처럼. 그것이 내가 이 음악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말하게 되는 이유다.

윤정현 객원기자 (stark1017@skuniv.ac.kr)

| 기자의 눈 |

[이동병의 편지 ④] 대한민국 최전방, DMZ로 가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사위를 살핀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감각들의 예민함과 사교의 민첩성을 극대화해 내가 처한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고자 한다. 기화한 사이렌의 대남 방송과 흥겨운 라디오의 대북방송이 뒤섞인 이질적인 소리들이 귓가를 파고든다. 그렇다, 나는 DMZ 내에 위치한 최전방 경계초소, GP(Guard Post)에 와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기억이 들쭉날쭉하다. 정신없고 쓴살 같이 흘러가는 군 생활 중에 어쩌어쩌하다 보니 이곳에 당도하게 됐다.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을 차려보니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 완전 금지, 매일 이어지는 훈련과 삼엄하고 엄중한 분위기 등 매 순간이 역경이고

고난이고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이 있다. 다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계속해서 잘못을 답습하고 부족함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

백지상태로 실전 경계 근무에 ‘던져진’ 입장인 했지만 그것을 감내해도 나는 GP 근무에 적응하는데 꽤 애를 먹었다. GP에 적응하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평범한 부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것들도 이곳에선 사치였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나는 전입 이주 만에 GP로 실전 투입됐다.

매일 밤낮이 바뀌는 근무 환경,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 완전 금지, 매일 이어지는 훈련과 삼엄하고 엄중한 분위기 등 매 순간이 역경이고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답답한 실수를 연발할지라도 보완해 가며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정답임을 알았다. 자신감을 잃은 채로 우울함에 잠식당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억지로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쪽으로 가는 방향을 확고히 알게 해주었다.

다만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 근무에 조금씩 지쳐가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였다. 헛바퀴처럼 이어지는 근무에 밤낮마저 수시로 바뀌니 피로와 스트레스가 날이 가면 갈수록 누적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특히 불면증이 매우 심해져, 4~5시간 동안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잠을 자지 못한 채, 근무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힘난한 여정을 함께해준 동기, 선임, 간부들이 아니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무사히 첫 번째 GP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후일담을 적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시間は 결국 흐른다는 것을 느낀다. 같은 걸로 남은 GP에서의 군생활을 대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막막한 현실이 끝도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이 또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막연하게 희망을 걸어 본다. 앞으로 180일의 GP 근무가 남았다.

전준혁 객원기자 (nicejackkyhu@naver.com)

전준혁 객원기자 (nicejackkyhu@naver.com)

만/파/식/적

여름은 고민의 계절

어느덧 여름, 고민이 깊어지는 6월이다. 서경대신문도 종강호를 맞이했다. 무난하고 무탈하게 지내고 싶다는 학기 초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우여곡절 가득한 한 학기를 보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점점 지쳐갔고, 표정 관리도 잘되지 않았다. 잡념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생각이 넘치다 못해 멍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3학년 1학기와 여름방학, 이 시기에 다른 친구들은 진로에 관해 고민하는 것을 잘 아니 그앞에서 필자의 고민은 더욱욱 조라해보였다.

인생의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머릿속이 소란스러웠다. 다른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활동을 할지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에 필자는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속상하기도 했다. 아직도 미숙했던 고등학생 때에서 조금도 자라지 않은 것만 같았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원하는 것은 욕심일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타의로 떠나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래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부터 판단은 화를 부른다는 걸 다시금 또 깨닫는다.

타인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친구들이 늘 부러웠다. 나누는 것이 본인의 물건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말이다.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그 말은 너무 별나라 얘기 같았다. 필자에게도 분명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해 모든 것을 주던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가시 돌진 방법으로 돌아오는 마음에, 더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이는 애초에 사람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줬을 때 더욱욱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작은 배려에도 쉽게 감동하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신의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제는 그들의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사이가 틀어지거나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사이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한층 성장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같이 있던 그 순간에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늘 그랬던 것 같다. 믿었던 쪽에서 상처를 받으면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마음을 나눠준다. 상처도, 이유로 결국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아마 필자는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줄 것이다.

완벽한 해답은 없어도,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놓지 않은 채 오늘도 끝없는 고민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이 여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달려보자.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사설

문과의 몰락,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의 나라.” 지난 4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며, 현 대한민국의 사회를 관통하는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이상적인 말과 문과로 사회를 움직이게 하려는, 이른바 ‘높으신 분들’에 대한 질타로 읽힌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분노에서 우리는, 효용적 측면에서 문과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문과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이미 이과 중심의 교육이 굳어졌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교사들도 이과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입시를 책임지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추세로 인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의 칼끝엔 항상 문과 계열 학과들이 앞서 있다. 철학이나 문학 같은 순수 문과 전공자들의 경우, 설 자리가 없어진 것도 모자라 그 뿌리가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점차 진행돼 가는 추세다. 이에 대한 견해를 퀸즐랜드 대학교 입학사정관인 토머스 로에게 물어봤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예컨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컴퓨터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을 전공한 사람은 기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컴퓨터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문과의 가장 큰 결함을 엿볼 수 있다. 문과의 진정한 한계는 ‘고리타분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오는 게 아닌, 변화하는 세상에서 좁아진 범용성에 있다. 그 범용성의 문제는 현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이 교수는 누구보다 폐해를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문과는 돈이 안 되는 사회를 이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인문학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온다면, 그때가 인문학이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질 때이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시장만능주의 원칙에 따라 이과가 세상을 관리하도록 만든다면 공공철학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는 곧 비이성적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과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할 수 있는가?’를 물을 때, 인문학은 ‘해야 하는가?’를 물어왔다.

문과가 취업 시장에서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전통적 학문에서 벗어나 기술, 데이터,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윤리학은 이미 기술 윤리로 연계돼 취업 시장에서 독보성을 띠고 있다. 문학과 언어학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져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문과는 현재 융합의 과도기에 서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학문’에서 벗어나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젠가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올 것이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오늘의 책

슬로 스타터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_이다지



▲ 출처 : 알라딘

"반드시 때가 온다. 꽃은 누구나 제때 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계절이 있다. 지금은 나의 계절이 아니다."
이 구절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한 번쯤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오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신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잘못된 빛보증으로 인해 반지하를 전전하며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다. 이때, 이다지는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노력은 이화여대 사학과에 입학하는 결실로 이어졌고, 재학 내내 장학생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63빌딩에 위치한 여의도 증권사에 취직하는 성과를 이뤘다.

명 '슬로 스타터' 라고 지칭한다. 그녀는 책을 통해 모든 '슬로 스타터' 들에게 조언한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고,
인생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때때로 경로를 이탈할 수 있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의 길만이 정답은 아니다.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며, 때로는 경로 변경이 인생에 있어 더 나은 목적지로 이끌 수 있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서울의 문화와 감성... - 2025 딜라이트 서울



'2025 딜라이트 서울'은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서울의 문화와 감성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뉴욕, 파리, 두바이, 도쿄 전시와 런던의 대규모 단독 전시 등 전 세계 대도시권에서 선보여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오늘의 드라마

연시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약한 영웅 Class 2 (2025)



▲ 출처 : 넷플릭스

지난 4월 25일 넷플릭스에서 <약한 영웅 Class 2>가 공개됐다. 이 드라마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에서 연재된 웹툰 <약한 영웅>을 학원 액션물로 각색해 제작

니터 △서울의 시간과 기억으로 구성된다. 지하에서 관람을 마치고 지상 5층으로 올라오면 지상 4층부터 2층까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한 의문 △호기심으로 가득한 서울의 이모저모 △사이니지 속 한글의 매력 순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필자는 평소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른 전시와 비교해 보며 관람했다. 기존 전시와 차별화된 키워드는 '체험'이라고 생각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 다수였고, 참여를 통해 작품의 형태가 바뀌기도 했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05.08.(일)~2025.11.15.(토)
· 전시장소 : 도화서길 디원 (서울 중로구 율곡로 18-1)
· 관람시간 : 10:00 ~ 20:00 (입장 마감 19:00), 연중무휴
· 관람비용 : 성인 28,000원 / 청소년 24,000원 / 어린이 20,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증빙서류 지참 필수) / 특별요금 (만 65세 이상, 장애인 경증(본인), 장애인 중증(동반 1인), 독립/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증 소지자) 14,000원 (증빙서류 지참 필수)

오늘의 장소

서울의 정취를 간직한 곳 - 남산도서관



남산서울타워 바로 아래, 용산구 소월로에는 남산도서관이 있다. 흔히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저 책을 보고 공부하는 장소일 뿐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책만 읽는 장소가 아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여러 번 시대에 맞춰 변화해 왔다. 현재는 딱딱한 도서관의 고정관념과는 많이 다른 도서관으로 변모해 디지털 라운지 전시회와 강의실을 갖춘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남산도서관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장소로 여겨진다. 1922년 일제 통치 시절 명동에 처음 세워져, 서울 중심의 도서관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자 남대문으로 옮겨졌고, 1965년에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현 위치로 옮겨졌다. 그렇게 지금의 '남산도서관'으로 굳어지게 된 이 장소는 보유 서적 10만 권으로, 그 당시 국내 최대 도서관의 자리를 지켰다.

가 도서관 전문가로 먼저 학생들 간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고 재건축도 하게 돼, 그 당시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추억을 간직해 남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산도서관 행정실 측에 따르면, 이용자의 비율 중 40~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들에게 이곳은 평범한 도서관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엔 젊은 시절 열정을 바쳤던 곳으로, 누군가에게는 연후에 찾아갈 곳이 없어 기대던 고향으로 기억된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 운영시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오늘의 음악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을 위한 노래

무더운 여름과 함께 모두가 기다리던 종강이 찾아왔다. 학기 내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대학생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름 방학을 맞아, 학기 내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음악 세 곡을 소개한다.



▲ 출처 : 지니뮤직

♪ 〈한여름밤의 꿈〉 - 산이 & 레이나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려본 너,
나를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별 취한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전 마치),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마치)"

산이와 레이나가 콜라보한 곡으로 여름밤의 설렘과 달달한 분위기를 담아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두 남자가 여름밤의 분위기를 위해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한여름밤의 꿈 로 담담하게 묘사했다. 덤덤한 감성이 짙어지는 여름밤, 이 곡을 들으며 설레는 기분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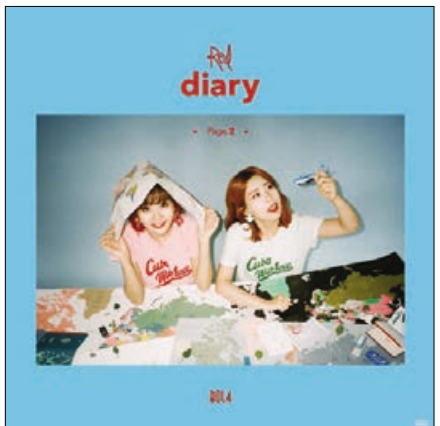
▲ 출처 : 지니뮤직

♪ 〈다시 여름 바닷가〉 - 싸쓰리

"지난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잊혀 버린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린 곡이다. 시간이 흘러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나눈 여름날의 바닷가를 찾아 그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그려낸다. 청량한 멜로디와 함께 소중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추억은 남는다. 음악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 출처 : 지니뮤직

♪ 〈여행〉 - 불벨간 사춘기

"쉬지 않고 빛났던 꿈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이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나 미쳤어
나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힘들었던 날을 뒤로하고 여행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르는 감정을 표현한 곡이다. 대학생들이 학기 내내 받은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 해방감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방학을 맞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뻘뻘. <약한 영웅 Class 1>은 2022년 웨이브를 통해 공개됐는데, 평범하고 왜소한 모범생 연시은(박지훈)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처음으로 사귄 인수호(최현욱), 오범석(홍경)과 함께 학교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다. 시은은 힘에 의존하기보다 계획과 전략을 세워 두뇌 싸움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갈등에 맞서 학교 폭력을 이겨낸다.

결국 연시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친구구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도 다시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 싸움을 선택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닮았다. 시은이 두려움을 딛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단순히 액션을 넘어 주인공의 쌓아가는 다양한 시선에 주목해 작품을 본다면 작품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위해 폭력과 맞서면서 벌어지는 성장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학교들이 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조직폭력배와 싸워가며 주인공 무리가 더 큰 세력 싸움과 권력다

오늘의 스포츠

손흥민부터 시작해 이강인까지... 한국 선수들의 우승 대잔치

대한민국 축구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박지성이 꽃피우고, 손흥민이 만개시켰다." 축구 팬 사이에서 '셋 중 누가 가장 뛰어난가'는 단골 토론 주제다. 이 토론에서 손흥민은 단로피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토론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부터 시작해 김민재, 이강인까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의 활약과 끈질긴 도전을 조망해 보려 한다.

43경기에 나와 3,595분을 땀 흘린 김민재지만, 팀 내에서 임지가 좋지 않다.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킬레스 건염을 앓았고, 원발에 물혹이 생길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부상 투혼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구단은 포지션 경쟁자인 요나탄 타를 영입해 새로운 수비진을 구축하려고 한다. 김민재와의 계약은 3년 남았지만, 이적은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 출처 : 중앙일보

이 외에도 세르비아에서 2관왕을 달성한 설영우(스베츠다), 잉글랜드에서 2부 리그 승격을 이끈 백승호(버밍엄), 스코틀랜드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양현준(셀틱) 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줬다. 다음 시즌에도 태극전사들의 순항을 기대한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